

나는 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다! 프랑스 화가 고갱이 남긴 말입니다. 눈 떴을 때보다 눈 감았을 때가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색상과, 인간미를 살려내는 장면을 실현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보이는 육적인 것을 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선과 차선을 분간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시달리다가 왜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잊어버린채 세월속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에서는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데 모압에서는 발람과 발락이 뱀 같이 간교한 자로 나옵니다. 뱀은 한번에 삼키는 것과, 단번에 파괴하는 특징이 있는데 발람과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니까 뱀의 속성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삼키는 자’란 뜻이고 (balaam - devourer), 발락은 파괴하는 자란 (balak - devastator) 뜻으로 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자들입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뱀에게 넘어갔듯이 이스라엘도 모압의 시험에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한 사건은 주전 4,114 년에, 또 하나는 주전 1,406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같은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혹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가는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은 죄 짓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 유혹에는 보양적이고, 먹음직하고, 안가지면 안되는 탐스러운 세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창 3:6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양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나와있는데 믿는 자에게 오는 시험은 믿는 일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싶게 하고, 또 보고싶게 하고 그리고 꼭 가져야만 하는 유혹입니다.

이 세가지가 한마디로 탐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고 약 1:15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순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광야에서 41 번째로 진을 친 곳에서였습니다.

그 곳은 가나안 땅에서 불과 7 마일 떨어진 모압평지였습니다. 이제 요단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혹하는 사단을 보세요. 모압의 왕 발락은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에게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로 그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평생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제의에 걸으려는 응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달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 22장-24장까지입니다. 발람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지만 교묘한 방법을 발락에게 대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 2:14이고, 그 결과가 민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더니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기가막힌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사람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타락하게 했던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말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수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뱀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되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 짓게 하기 위해서 ‘탐심’의 축제에 초청한 것입니다. 모압이 내 놓은 유혹은 모압의 최고 미인들과, 끝내주는 음식과, 풍성함을 준다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여자에게 했던 뱀의 유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양적이고 먹음직하고 꼭 가져야만 했던 그 탐심의 유혹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음직하고 보양직하고 반드시 꼭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을 겨냥해서 요단 강 건너기 전 마지막 시험을 준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41 번째로 진 친 곳입니다.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모압입니다. 누가 내 아버지인지가 가려지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42 번 진을 쳤듯이 주님은 아브라함부터 42대만에 오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요 4:24)!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세요 (1 요 2:15-17)! 빛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지름길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

로 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 받습니다. 나팔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시험이며, 그 시험을 이겨야 변화의 실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전 3:11). 마음의 눈입니다 (엡 1:18).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입니다. 육의 눈을 달아야 영안이 열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변화 되지 못하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 3:16). 마지막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가지세요 (롬 8:37)!